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시제 표지 이해 및 산출 특성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Tense Marking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조 미 옥¹⁾ · 최 소 영²⁾ · 황 민 아³⁾

Jo, Miok · Choi, soyoung · Hwang, Mi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various tense markings in Korean-speaking children with and without language delay. Thirty children with language delay(LD) and 30 typically developing(TD)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each group, half were at the age of 4-years and the other half at 7-years. In both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task, 28 verbs containing four types of tense markings were used: past tense '-et ta', two present progressives '-ko itta', '-enta', and future tense '-elyeko hanta'. In the comprehension task, the children were presented with three printed still-scenes of video recording of a verb action, each representing future, present progressive, and past tense of the verb, respectively. Then they listened to the action verb with one of the 4 tense markings and had to pick the scene that matched the verb tense. In the production task, the children were given one of the three scenes and asked to produce the verb with appropriate tense marking. In both tasks, the LD children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TD children, and the older children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younger children. Interestingly, the pattern of performances across different types of tense markings at the two language-age levels were closely similar in LD children and TD children. This similarity of groups seemed stronger in the comprehension task than the production task.

Keywords: language delayed children, grammatical morpheme, tense markings

1. 서론

일반적인 언어발달을 하는 아동은 한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어휘수가 증가하고 두 낱말을 조합하면서 문장을 산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능어(functional word)인 문법형태소를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문장의 길이를 확장하는데 중요하며, 이러한 속성은 의사소통 기능, 인지발달, 지각의 현저성, 문법적 의미의 복잡성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조명환, 1982). 즉, 문법형태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복잡한 문법적 체계와 의미적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아동의 언어 발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여러 언어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문법적인 발달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onard et al., 1997). 다수의 국외 연구들에서 언어발달이 지체된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아동들이 문법형태소의 획득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점이 보고되었으며(Bedore & Leonard, 1998; Hansson & Nettelbladt, 1995; Leonard & Bortolini, 1998; Paradis & Cargo, 2000; Rice & Oetting, 1993). 문법형태소 중에서도 시제의 적절한 사용이 언어발달 지체 여부를 판별하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Rice & Wexler, 1996; Rice, Wexler & Cleave, 1995). 시제 표현의 습득은 다른 문법형태소의 성장 곡선을 대변해줄 뿐 아니라 형태 및 통사론 형성의 바탕이 되며 어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Rice, 2003; Rice & Wexler, 2001;

1) 단국대학교 대학원, miokgirl@naver.com

2) 단국대학교, syc529@dankook.ac.kr, 교신저자

3) 단국대학교, hwangm@dankook.ac.kr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09)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접수일자: 2014년 5월 16일

수정일자: 2014년 6월 15일

게재결정: 2014년 6월 16일

Rice, Wexler & Hershberger, 1998).

한국어의 시제는 어미, 보조용언, 부사 등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시제 어미는 사용 위치에 따라 문장 종결형 선어말어미(‘-었-, -았-, -느다, -더-, -겠-’ 등)와 관형사형 어말어미(‘-(으)ㄴ-, -는-, -(으)르-, 던’ 등)로 나눌 수 있다(남기삼, 2001). 과거 시제로는 완료상 또는 완결의 의미로 해석되는 시제 어미 ‘-었-’이 주로 쓰이고, 현재 시제는 대개 원형으로 나타나지만 선어말어미 ‘-ㄴ/는다’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며,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형태소는 ‘-겠-’이나 ‘(으)르’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고 있다’, ‘-려고 한다’와 같은 보조용언이나 ‘내일’, ‘일찍’, ‘급방’, ‘먼저’ 등의 시간부사를 통해서도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문법형태소를 비롯한 문법적 규칙의 획득과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은영, 2003; 김수영·배소영, 2002; 박주현, 2001; 정경희·배소영, 2010; 이정미, 2001; 한효섭, 2003). 그 간의 연구는 조사(권도하·정분선, 2000; 박정현, 2002; 이나영, 2004)나 연결어미(김정아, 2002; 김주환, 2002; 서희선·이승환, 1999)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제는 문법형태소의 일부로 드물게 다루어졌다. 일부 보고된 연구들도 주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시제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는데 그쳐(조명환, 1982; 서봉연·주영희, 1986; 황미하, 2003; 원혜미·황민아, 2005; 이순형, 2000)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한국어의 문법 형태소 체계는 그 형태와 복잡성 측면에서 타 언어권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와 서술어에 붙는 어미를 중심으로 문법형태소가 발달되어 있으며, 문장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 문법형태소가 어순보다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장애 아동들이 시제, 인칭과 수의 일치, 단서의 성별과 같은 문법형태소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를 보이는데 반해(Bedore & Leonard, 1998; Rice & Oetting, 1993), 한국어는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른 동사 변화가 없고 단어에 성별 구분이 없지만 다양한 격조사 표지를 사용한 표현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 그 중에서도 문법형태소의 획득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언어발달지체아동들에게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그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어발달지체아동 집단은 정신지체나 청력 손실, 신경학적 결함 및 뚜렷한 정서·행동적 문제를 동반하지 않았음에도 언어발달이 또래에 비해 지체된 아동들로 구성되었다(황민아, 2003, 재인용). 통상적인 단순언어장애의 선정 기준은 배타적 준거(exclusionary criteria)를 바탕으로 한 정의의 적용함에 따라 아동들의 집단이 이질성을 보이게 되는

데, Stark & Tallal (1981)은 이를 보완하고자 비언어성 지능지수를 85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Plante (1998)는 연구 결과 적용의 범위가 한정됨을 지적하면서 정신지체를 배제하는 단순언어장애의 원래 정의를 따라 비언어성 지능지수 70(혹은 오차 범위 포함 75)을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수영·배소영(2002)은 비언어성 지능 85 이상과 70-84 범위인 언어장애 아동들의 언어 과제 수행을 관찰하였고 두 집단의 수행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언어성 지능지수가 70 이상이면서 감각·신경·정서·행동적 결함이 없는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시제 이해와 산출 특성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시제표지의 발달 양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언어연령을 4세로 일치시킨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 각 15명, 언어연령을 7세로 일치시킨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 각 15명으로, 총 60명이었다. 언어연령 집단을 구분한 근거는 일반아동의 경우 4세 이후에 형태소의 수가 급증하며 연결어미가 다양해지고, 만 5-6세가 되면 자신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법형태소의 발달도 거의 성인 문법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배소영, 1995; Rice & Wexler, 1996). 즉, 문법형태소의 다양성이 도래하는 4세와 성인 문법의 대부분을 습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7세로 언어연령 집단을 나누었다.

2.1.1 언어발달지체아동 집단

언어발달지체아동 집단은 (1)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의 동작성 지능지수가 70 이상이면서 (2) 청각 및 시각 등의 감각 장애와 정서·행동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언어연령 4세 집단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의 통합언어연령이 생활연령보다 1년 이상 지체되는 아동 중 통합언어연령이 4세 0개월에서 4세 11개월 사이에 속하는 아동들이었고, 언어연령 7세 집단은 구문의 미 이해력 검사(KOSECT)의 점수가 대상아동의 생활연령이 속한 표준집단의 평균에 비해 -1 표준편차 이하에 있는 아동 중 7세 점수의 ± 1 표준편차 이내에 속하는 아동들이었다.

2.1.2 일반아동 집단

일반아동 집단은 (1)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의 동작성

지능지수가 85 이상이면서 (2) 부모에 의해 정상발달로 보고된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언어연령 4세 집단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의 통합언어연령이 생활연령의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아동들이었고, 언어연령 7세 집단은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KOSECT)의 점수가 7세 평균의 ± 1 표준편차 이내에 속하는 아동들이었다.

두 집단의 대략적인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피험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characteristics

	언어연령	평균 생활연령 (표준편차)	평균 지능지수 (표준편차)
언어발달지체아동 (N=15)	4;0~4;11	6;3 (10.77)	79.07 (7.75)
	7;0~7;11	10;6 (15.37)	77.13 (7.79)
일반아동 (N=15)	4;0~4;11	4;6 (3.13)	103.20 (11.40)
	7;0~7;11	7;6 (2.02)	109.67 (14.66)

* 생활연령 표준편차의 단위는 '개월'

2.2 도 구

시제의 이해와 산출 검사에 사용될 동사는 원혜미·황민아(2005)의 연구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MCDI-K 유아용 검사(배소영, 2003)를 기초로 대부분의 유아들이 습득한 동사 중 과거, 현재진행, 미래의 시제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 가능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실험동사 30개 중 연습과제 2개를 제외한 28개 동사는 각각 과거 '-었-', 현재진행 '-고 있다', 현재진행 '-ㄴ/는다', 미래 '-려고 한다'의 4 조건별로 7개씩 할당되었다. 모든 동사는 이해과제와 산출과제에 반복 사용되었으나 하나의 동사가 이해과제와 산출과제에서 같은 시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이해과제에서 과거 '-었-'으로 사용된 동사들은 산출과제에서 현재진행 '-ㄴ/는다'으로, 이해과제에서 현재진행 '-고 있다'로 사용된 동사들은 산출과제에서 미래 '-려고 한다'로, 이해과제에서 현재진행 '-ㄴ/는다'로 사용된 동사들은 산출과제에서 과거 '-었-'으로, 이해과제에서 미래 '-려고 한다'로 사용된 동사들은 산출과제에서 현재진행 '-고 있다'로 사용되었다. 또한 각 과제 내에서 같은 시제가 3번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무선 배열하였다.

검사도구는 연습동사 2개와 실험동사 28개를 표현하는 동영상과 동사별로 촬영한 뒤 과거, 현재진행, 미래의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동작 시작 전, 동작 진행 중, 동작 완료 후의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 저장하여 제작하였다. 언어연령 4세와 7세인 일반아동 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각 시점을 반영하는 그림들을 수정 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동사에 대한 3시점의 그림을 A4용지에 가로로 무선

배열하여 컬러로 출력해 검사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과 그림의 예는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2. 목표 동사의 예
Table 2. Examples of target verb

	목표 시제	목표 동사
이해 과제	과거 '-었-'	(우유를) 쏟았다
	현재진행 '-ㄴ/는다'	(우유를) 쏟는다
산출 과제	현재진행 '-고 있다'	(종이를) 자르고 있다
	미래 '-려고 한다'	(종이를) 자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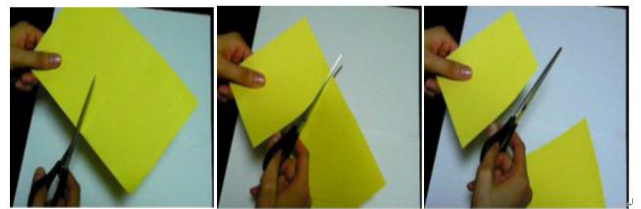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자극의 예

Figure 1. Examples of stimulus picture

2.3 연구 절차

선별검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부합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아동과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검사자와 아동이 마주 본 상태에서 노트북으로 과제 동영상과 시제를 제시하였고, 아동들은 동영상 28개를 연속적으로 본 후 각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해와 산출 과제 유형 각 1개씩 2회의 연습과제를 먼저 제시하였다. 이해 과제의 경우 실험자가 목적어 없이 제시되는 동사를 듣고 3개의 그림에서 시제가 일치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고, 산출 과제의 경우 검사자가 아동에게 3개의 그림 카드 중 하나를 지적하여 보여주면 아동은 적절한 동사를 산출하였다. 검사자는 즉시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였고 아동이 산출을 어려워하는 경우 목적어를 단서로 제시하여 반응을 유도하였다.

본 실험을 실시할 때 두 과제의 시행 순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각 연령의 아동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은 이해과제를, 다른 집단은 산출과제를 먼저 실시하도록 역균등화(counterbalancing)하였다.

2.4 자료 분석

이해과제에서 목표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림카드에서 맞는 그림을 지적하고 산출 과제에서 맞는 동사 시제를 표현한 경우 1점을 주고, 틀린 그림을 지적하거나 틀린 표현을 하고 무반응이나 모르겠다고 표현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단, 산출과제에서 현재진행을 표현해야 하는 기회는 총 14번으로, 이에 대해 '-고 있다' 또는 '-ㄴ/는다'로 표현하였을 시 정반응으로 계산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어발달 지체유무와 연령에 따른 시제 이해 및 산출을 알아보기 위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시제표지 이해

4, 7세의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시제 표지 이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 수행을 분석한 결과, 집단 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이 나타났고 정반응률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두 집단 모두 현재진행 ‘-고 있다’, 과거 ‘-었-’, 미래 ‘-려고 한다’, 현재진행 ‘-ㄴ/는다’의 순으로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표 3. 시제표지 이해 과제의 점수평균 및 표준편차(괄호 안)
Table 3. Descriptive data of tense comprehension task : mean number of correct answers and standard deviations according to the groups and conditions

시제	일반아동		언어발달지체아동	
	4세	7세	4세	7세
과거 ‘-었-’	4.20 (1.26)	5.87 (1.13)	3.53 (2.17)	5.20 (1.82)
현재진행 ‘-고 있다’	5.07 (1.22)	6.33 (.82)	4.00 (1.20)	5.87 (1.41)
현재진행 ‘-ㄴ/는다’	2.33 (.98)	4.13 (1.06)	1.73 (1.49)	3.07 (1.53)
미래 ‘-려고 한다’	3.40 (1.80)	5.80 (.68)	2.00 (1.96)	5.07 (1.83)

* 시제유형별 총점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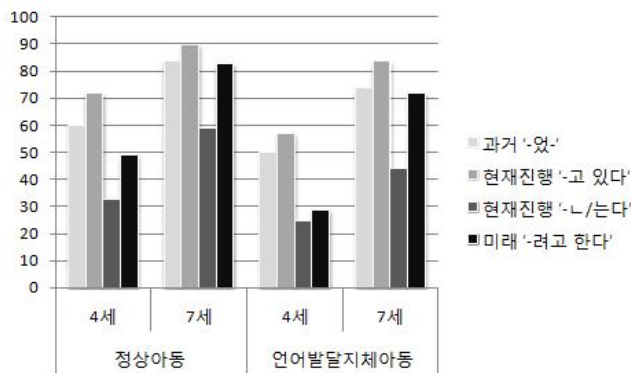


그림 2. 시제 이해 과제의 정반응률(%)

Figure 2. Correct percentage of tense comprehension task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집단과 연령에 따른 시제 이해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2)x연령(2)x시제유형(4)을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F(1,56)=13.275, p<.01$)과 연령($F(1,56)=67.804,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56)=.191, p>.05$).

한편, 시제유형의 주효과($F(3,168)=38.322, p<.001$)와 더불어 시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68)=2.713, p<.05$). 그러나 집단x시제, 집단x연령x시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F(3,168)=.242, p>.05; F(3,168)=.603, p>.05$).

시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함에 따라 4세와 7세 각 집단에서 시제유형에 따른 이해 능력의 차이를 보다 상세히 알고하고자 주효과 비교를 실시하였다(표 4).

표 4. 연령 별 시제 이해 정확도 차이의 유의확률 비교

Table 4.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accuracy in the comprehension task between age group

4세 집단	과거 ‘-었-’	현재진행 ‘-고 있다’	현재진행 ‘-ㄴ/는다’	미래 ‘-려고 한다’
과거 ‘-었-’	-	$p = .358$	$p = .002$	$p = .108$
현재진행 ‘-고 있다’		-	$p = .000$	$p = .000$
현재진행 ‘-ㄴ/는다’			-	$p = .474$
미래 ‘-려고 한다’				-
7세 집단	과거 ‘-었-’	현재진행 ‘-고 있다’	현재진행 ‘-ㄴ/는다’	미래 ‘-려고 한다’
과거 ‘-었-’	-	$p = .267$	$p = .000$	$p = 1.000$
현재진행 ‘-고 있다’		-	$p = .000$	$p = .260$
현재진행 ‘-ㄴ/는다’			-	$p = .000$
미래 ‘-려고 한다’				-

4세 집단은 현재진행 ‘-ㄴ/는다’와 과거 ‘-었-’($p=.002$), 현재진행 ‘-ㄴ/는다’와 현재진행 ‘-고 있다’($p=.000$), 미래 ‘-려고 한다’와 현재진행 ‘-고 있다’($p=.00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7세 집단은 현재진행 ‘-ㄴ/는다’와 과거 ‘-었-’($p=.000$), 현재진행 ‘-ㄴ/는다’와 현재진행 ‘-고 있다’($p=.000$), 미래 ‘-려고 한다’와 현재진행 ‘-ㄴ/는다’($p=.00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시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4세경 아동들에서 과거나 현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미래 시제의 수행이 7세경에 이르면서 괄목할만한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시제표지 산출

4, 7세의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시제 표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 수행을 분석한 결과, 집단 별 점

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이 나타났고 정반응률은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현재진행 유형의 경우 14번의 산출 기회 중에 ‘-고 있다’와 ‘-ㄴ/는다’를 모두 정반응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두 조건을 합쳐 총점을 14점으로 계산하였고 과거와 미래 유형은 각각 총점이 7점이었다.

표 5. 시제표지 산출 과제 점수평균 및 표준편차(괄호 안)
Table 5. Descriptive data of tense production task : mean number of correct answers and standard deviations according to the groups and conditions

시제	일반아동		언어발달지체아동	
	4세	7세	4세	7세
과거 ‘-었-’	3.27 (1.94)	6.80 (.41)	2.33 (2.06)	5.07 (1.75)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	8.53 (3.14)	10.60 (2.16)	8.13 (2.29)	9.53 (3.02)
미래 ‘-려고 한다’	1.33 (1.88)	6.60 (.63)	.40 (1.06)	4.47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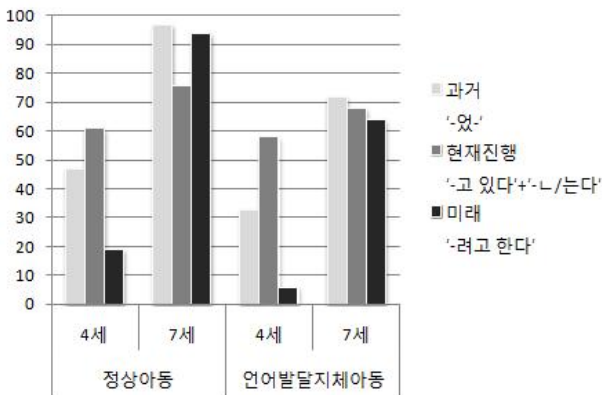


그림 3. 시제 이해 과제의 정반응률(%)
Figure 3. Correct percentage of tense production task

4세 집단의 경우 언어발달지체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고 있다’, ‘-ㄴ/는다’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고, 이어서 과거 ‘-었-’, 미래 ‘-려고 한다’의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반면, 7세 집단의 경우 가장 높은 정반응률이 나타난 유형은 과거 ‘-었-’ 조건이었으나 현재진행과 미래 시제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산출의 정반응률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집단과 연령에 따른 시제 이해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2)x연령(2)x시제유형(4)을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F(1,56)=20.676, p<.001)과 연령(F(1,56)=149.392,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56)=2.684, p>.05).

한편, 시제유형의 주효과(F(2,112)=13.372, p<.001)와 시제x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2,112)=21.642, p<.001), 집단x시제유형 및 집단x연령x시제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각 F(2,112)=2.327, p>.05; F(2,112)=.284, p>.05).

시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4세와 7세 각 집단 별 시제유형에 따른 산출 능력의 차이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주효과 비교를 실시하였다(표 6).

표 6. 연령 별 시제 산출 정확도 차이의 유의확률 비교
Table 6.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accuracy in the comprehension task between age group

4세 집단	과거 ‘-었-’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	미래 ‘-려고 한다’
과거 ‘-었-’	-	p = .000	p = .000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		-	p = .000
미래 ‘-려고 한다’			-
7세 집단	과거 ‘-었-’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	미래 ‘-려고 한다’
과거 ‘-었-’	-	p = .000	p = .209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		-	p = .000
미래 ‘-려고 한다’			-

4세 집단은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와 과거 ‘-었-’(p=.000), 미래 ‘-려고 한다’와 과거 ‘-었-’(p=.000), 현재 진행 ‘-고 있다’, ‘-ㄴ/는다’와 미래 ‘-려고 한다’(p=.000) 사이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7세 집단은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와 과거 ‘-었-’(p=.000), 현재진행 ‘-고 있다’, ‘-ㄴ/는다’와 미래 ‘-려고 한다’(p=.00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제 이해 과제와 시제 산출 과제에서 시제유형별 반응정확도의 패턴은 다소 상이하였으나 시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즉, 시제 이해 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제 산출 과제에서도 4세경 아동들이 과거나 현재형에 비해 미래형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였던 반면 7세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미래 시제 산출 능력이 과거 시제의 수행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시제 산출의 오류 형태

시제 산출 과제에서 시제유형별로 언어발달지체 유무와 연령에 따른 집단 간에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과거, 현재진행, 미래 시제 각각에 대한 산출 오류 유형 및 빈도는 각각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과거 시제를 산출하여야 하는 조건에서, 4세 연령의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현재진행 '-니/는다'로 산출하는 오류를 많이 보였고 동사 원형으로 산출하는 오류도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체 집단 중 7세 아동들도 주로 현재진행 '-니/는다'로 산출하는 오류를 보였으나 일반 집단의 7세 아동들은 오류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진행 시제를 산출하여야 하는 조건에서는 일반 4세, 일반 7세, 지체 4세는 과거 '-었-'으로 산출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고 지체 7세는 미래 '-려고 한다'로 대치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나타냈다. 지체 4세는 원형으로 대치하는 오류도 보였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미래 '-려고 한다'로 대치하는 오류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래 '-려고 한다'로 대치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미래 시제를 산출하여야 하는 조건에서는 일반 4세, 지체 4세, 지체 7세 집단의 경우 현재진행 '-니/는다'로 대치하는 오류를 주로 보인데 비해 일반 7세 집단은 거의 오류가 없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시제 표지의 이해와 산출 능력의 특성을 살펴보고 언어연령을 4세와 7세로 나누어 발달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시제 표지의 산출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와 그 시사점에 대해 아래에 논하였다.

첫째, 시제표지의 이해와 산출에서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였으나 시제유형별 패턴은 두 집단에서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측면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과제에서의 반응 정확도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여 현재진행 '-고 있다'와 과거 '-었-'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수행이 가능하였고, 그에 이어 미래 '-려고 한다', 현재진행 '-니/는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시제 출현이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진행형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조명한, 1982) 비록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시제 이해 발달이 일반아동에 비해 느리게 나타나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됨을 시사하였다.

산출 과제에서의 반응 정확도의 경우, 일반 집단과 언어발달지체 집단 모두 4세경에는 현재진행 '-고 있다', '-니/는다', 과거 '-었-', 미래 '-려고 한다'의 순으로 높은 정반응률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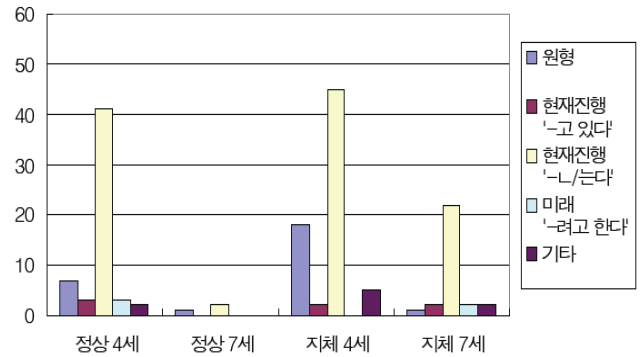


그림 4. 과거 시제 산출 시 오류 유형의 빈도 (%)
Figure 4. Type and frequency of errors in the past t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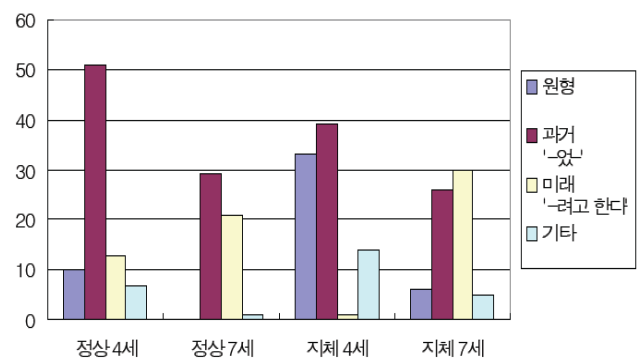


그림 5. 현재진행 시제 산출 시 오류 유형의 빈도 (%)
Figure 5. Type and frequency of errors in the present progres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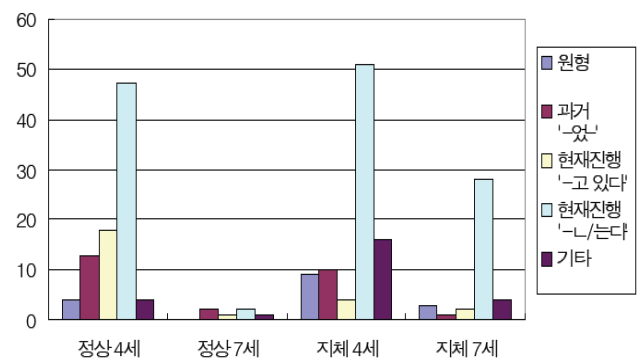


그림 6. 미래 시제 산출 과제의 오류 유형 별 빈도 (%)
Figure 6. Type and frequency of errors in the future tense

여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7세경에는 언어발달지체 유무에 따라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발달 패턴이 관찰되었다. 즉, 일반 7세 집단의 아동들은 과거 '-었-', 미래 '-려고 한다', 현재진행 '-고 있다', '-니/는다'의 순으로 적절한 수행을 보인 반면, 언어발달지체 7세 집단에서는 과거 '-었-', 현재진행 '-고 있다', '-니/는다', 미래 '-려고 한다'의 순으로 정반응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 7세 집단의 아동은 과거와 미래 시제의 개념이 거의 확립되어 있는 것에 비해 언어발달지체 7세 집단

의 아동은 여전히 미래 시제의 개념이 부정확하게 형성된 상태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대한 표상이 미래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언어 표현 발달 과정에서는 인지적으로 먼저 확립되는 개념부터 출현한다는 이승복(1994)의 관점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으며 언어발달지체아동의 경우 시제 개념에 대한 표상이 일반아동보다 뒤늦게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지체아동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래 산출의 정반응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언어발달지체 유무와 별개로 연령에 따른 미래 시제 개념의 습득과 발달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언어장애를 동반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약 8세경이 되면 일반발달 아동의 하한(lower bound)에 비견할 정도의 안정된 시제 사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Rice, 2003; Rice, Wexler & Hershberger, 1998).

둘째, 시제표지의 산출에서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은 언어발달지체유무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시제 오류 형태를 보였다. 일반 4세 집단은 과거형과 미래형을 현재진행 '-ㄴ/는다'로 대치하거나 현재진행형을 과거형으로 대치하는 오류가 많았으나, 일반 7세 집단은 과거형과 미래형에서는 거의 정확한 수행을 보였고 현재진행형의 경우만 과거형으로 대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언어발달지체 4세 집단은 과거형과 미래형을 현재진행 '-ㄴ/는다'로 대치하거나 현재진행형을 과거형이나 동사원형으로 대치하는 오류를 보였고, 언어발달지체 7세 집단은 과거형과 미래형을 현재진행 '-ㄴ/는다'로 대치하고 현재진행형은 미래형으로 대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양상은 앞서 반응 정확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일반아동의 경우 7세에 이르면 대부분의 시제 개념이 완성되어짐을 지지하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과거, 현재진행,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데 '-었-', '-고 있다', '-ㄴ/는다', '-려고 한다'의 4가지 시제어미와 보조용언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현재시제는 선어말어미 '-는/-ㄴ-'과 종결어미 '-다' 외에도 관형사 어미 '-는, (으)ㄴ'에 의해 표시될 수 있고, 과거시제는 선어말어미 '-았-/-었-/-였-/-ㅂ-'과 함께 관형형어미 '-(으)ㄴ/던'이 쓰이기도 하며, 미래시제는 연결어미 '-려고' 뿐 아니라 선어말어미 '-겠-'과 관형형 어미 '-(으)ㄴ', 관용적 표현 '(으)거예요'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시제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시제 어미와 보조 용언, 시간 부사를 포함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시제 출현 시기, 출현 빈도, 출현율 등을 보고 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을 직접

비교하여 시제 표현의 이해 및 산출과 관련된 발달 양상을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법형태소의 이해와 산출에서 나타나는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차이점과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는 이 같은 시도는, 시제와 같은 특정 표지가 출현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위험성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조기 중재를 도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Bedore, L. & Leonard, L. (1998).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Grammatical Morphology: A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 1185-1192.
- Cho, M. H. (1982).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of Korean children: strategy model*.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조명한 (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Han, H. S. (2003). The Produc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in Hearing Impaired Children and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Dankook University, Yongin. (한효섭 (2003). 청각장애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ansson, K. & Nettelblatt, U. (1995).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Swedish Children With SLI.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589-598.
- Hwang, M. (2003). The Produc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of Korea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Impairments. *Speech science*, 10(3), 47-64. (황민아 (2003).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음성과학, 10(3), 47-64.)
- Hwang, M. H. (2003). A Longitudinal Study of a Korean Child's Language Development: from 30 to 41 Months. Dankook University, Yongin. (황미하 (2003). 2;6-3;5세 한국아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종단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ung, K. H. & Pae, S. Y. (2010). The Grammaticality Judgment in School-Aged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5(4), 619-631. (정경희, 배소영 (2010). 초등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 판단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5(4), 619-631.)
- Kim, E. Y. (2003). The Use of Grammatical Morphemes of Korea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Dankook University, Yongin. (김은영 (2003).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

- 법형태소 사용 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J. A. (2002). Production of Connective Endings of Korea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Hallym University, Chuncheon.
(김정아 (2002). 정상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연결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J. H. (2002). The Development of Connective Endings in 3 to 5-Years-Old Language Delayed Children. Dankook University, Yongin.
(김주환 (2002).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3-5세 아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S. Y. & Pae, S. Y. (2002). The Use of Grammatical Morphemes of Korea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Speech Sciences*, 9(4), 77-91.
(김수영, 배소영 (2002).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음성과학, 9(4), 77-91.)
- Kwon, D. H. & Jeong, B. S (2000). The Development of Particles in the Normal Children Aged from 2 to 5 Year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9(1), 139-163.
(권도하, 정분선 (2000). 2-5세 아동의 조사 발달 연구. 언어치료연구, 9(1), 139-163.)
- Lee, J. M. (2001). The Produc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of Children with SLI in Sentence Repeti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이정미 (2001). 문장 따라말하기에 나타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조사처리능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N. Y. (2004). Producing particle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length of utterance of normal children in the period of basic grammar. Yonsei University, Seoul.
(이나영 (2004). 기본문법기 정상아동의 연령과 발화 길이에 따른 조사의 산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S. B. (1994). Languag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for children. Seoul:Jeongmin.
(이승복 (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 획득과 발달. 서울:정민사.)
- Lee, S. H. (2000). The Acquisition of Korean Grammatical Morphemes in Early Childhood.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4), 51-68.
(이순형 (2000). 한국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한국아동학회지, 21(4), 51-68.)
- Leonard, L. B., & Bortolini, U. (1998). Grammatical morphology and the role of weak syllables in the speech of Italian-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 1363-1374.
- Leonard, L., Eyer, J., Bedore, L., & Grela, B. (1997) Three accounts of the grammatical morpheme difficulties of English-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 741-753.
- Nam, K. S. (2001). Modern Korean Syntax. Seoul:Thaehaksa.
(남기심 (2001). 현대국어 통사론. 서울:태학사)
- Pae, S. Y. (1995).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primary data of diagnosis. Speech therapy specialists training. Seoul:Kore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배소영 (1995). 한국아동의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전문요원 교육, 서울:한국언어병리학회.)
- Pae, S. Y. (200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Adaptation of MCDI.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8(2), 1-14.
(배소영 (2003). 영유아기 의미평가도구 MCDI-K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8(2), 1-14.)
- Paradis, J., & Crago, M. (2000). Tense and temporality: A comparison between childr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and children with SLI.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834-847.
- Park, J. H. (2001). Cohesive conjunctives in narratives of language delayed and normal children. Ewha University, Seoul.
(박주현 (2001). 언어발달지체 및 정상아동의 접속표지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J. H. (2002). The use of case-particles of Korean-speaking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Yonsei University, Seoul.
(박정현 (2002).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lante, E. (1998). Criteria for SLI: The Stark and Tallal legacy and beyond.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 951-957.
- Rice, M. (2003). A unified model of specific and general language delay: Grammatical tense as a clinical marker of unexpected variation. In *Language Competence Across Populations: Towards a Definition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Y. Levy and J. Schaeffer (eds.), 63-9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Rice, M. & Oetting, J. (1993). Morphological deficit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Evaluation of number marking and agree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1249-1257.
- Rice, M. & Wexler, K. (2001). *Test of Early Grammatical Impairment*. New York, NY: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Rice, R. & Wexler, K. (1996). Toward tense as a clinical marker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 1236-1257.
- Rice, M., Wexler, K. & Cleave, P. (1995).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s a period of extended optional infinitiv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850-863.
- Rice, M., Wexler, K. & Hershberger, S. (1998). Tense over time: The longitudinal course of tense acquisit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 1412-1431.
- Seo, B. Y. & Joo, Y. H. (1986).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teaching. Seoul: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서봉연, 주영희 (1986). 언어의 발달과 지도.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 Seo, H. S. & Lee, S. H. (1999). The Development of Connect ive Endings of 2-5 Year Old Norm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4, 167-185.
(서희선, 이승환 (1999).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4, 167-185.)
- Stark, R. E. & Tallal, P. (1981). Selection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defici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6, 114-122.
- Won, H. M. & Hwang, M. (2005).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Tense Markings in 3- to 5-year Old Korean Children.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12(4), 183-195.
(원혜미, 황민아 (2005). 3-5세 아동의 시제어미 이해와 산출의 정확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12(4), 183-195.)

- **조미옥 (Jo, Miok)**

단국대학교 대학원
Email: miokgirl@naver.com
관심분야: 아동언어장애

- **최소영 (Choi, soyoung)**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Email: syc529@dankook.ac.kr
관심분야: 언어장애, 언어심리

- **황민아 (Hwang, Mina)**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Email: hwangm@dankook.ac.kr
관심분야: 신경언어장애, 아동언어장애